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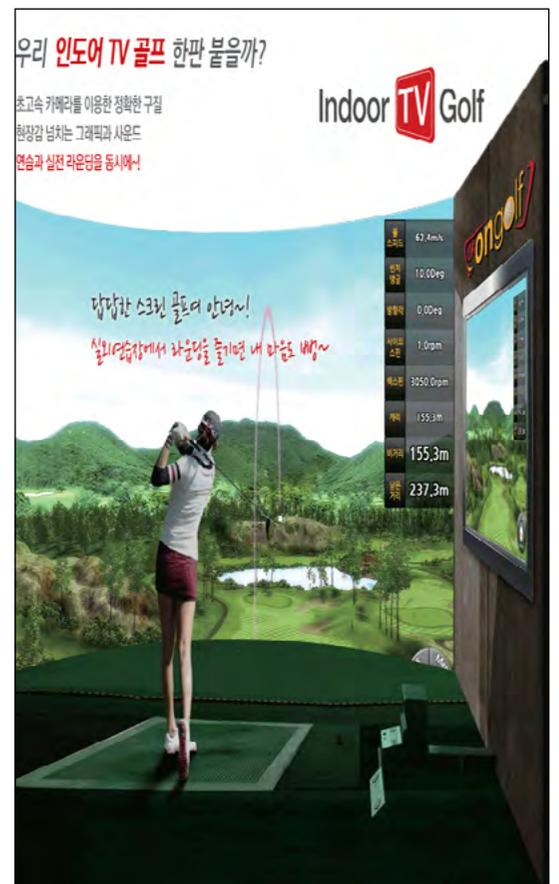
오케이온골프웹진을 스마트폰에서 보기 위해서는 어도비아크로벳리더(Adobe Acrobat Reader)가 필요합니다. 어도비아크로벳리더는 Play스토어(안드로이드폰),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아 설치한 후 웹진을 보시면 선명하고 깨끗한 화질로 보실 수 있습니다.



2015 KLPGA 대상 시상식 여자골프 스타 총출동

여자골프스타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2015 KLPGA 대상 시상식이 지난달 7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대상에는 올 시즌 국내투어 5승과 함께 일본과 미국의 메이저대회 3승을 거둔 전인지(21·하이트진로)였다. 이외 상금왕, 다승왕, 최저타수상, 해외특별상, 한국골프기자단이 선정한 'KLPGA Best Player Trophy' 등의 수상자들이 무대에서 화려하게 빛났다. 장타왕 박성현(22·넵스)은 기자 투표와 온라인 투표를 합산, 인기상과 생애 최초로 우승을 거둔 프로들을 위한 KLPGA 위너스클럽의 주인공이 됐다. 박성현과 함께 하민승(19·롯데), 오지현(19·KB국민은행), 그리고 최혜정(24)은 KLPGA 위너스클럽을 수상했다. 올 시즌 가장 뜨거운 격전지였던 NH투자증권 신인상 부문에 대회마다 고른 활약을 펼친 박지영(19·하이원리조트)이 영광을 안았다. 'KLPGA와 SBS가 함께하는 드림위드버디' 프로그램을 통해 모은 1억1580만1000원의 자선기금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 해외 특별상에는 올해 아시아 선수 최초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박인비(27·KB금융그룹)가 수상했다. 박인비는 KLPGA로 부터 메이저 7승과 해외투어에서 총 20승 이상을 기록해 영구시드권을 부여받았다. 해외 특별상으로는 일본 남녀투어를 통틀어 최다 상금 기록을 경신한 이보미(27·마스터스GC)와 LPGA신인왕에 빛나는 김세영(22·미래에셋), 2015 국내외 투어를 휩쓴 전인지가 받았다. 국내 특별상은 2015 KLPGA 투어에서 우승한 김보경, 고진영, 김민선5, 이정민 조운지, 안신애 등 총 11명이 받았다. 명예의 전당에는 신지애가 입성하게 됐다. 명예의 전당은 10년 이상의 투어경력과 100점 이상의 포인트를 획득해야만 입성할 수 있다. 박세리 프로에 이어 역대 3번째이자 최연소로 입성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며 명예의 전당에 영구 보관될 핸드프린팅을 만들었다.

한편 이날 올해 한국여자프로골프의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관계자에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공연으로는 한국여자골프의 미래를 짊어질 KLPGA 골프 키즈단과 가수 아미의 콜라보 축하공연이 펼쳐져 관중의 큰 호응을 받았다.



더퀸즈컵 바이 코와
KLPGA팀 아쉬운 준우승



2016시즌 개막전 현대차 중국여자오픈
장타여왕 박성현, 우승



'발렌타인 한국프로골프 대상 시상식 2015' 개최
이태희 대상, 이경훈 상금왕

KLPGA, 용인 '하희의 집' 찾아 봉사 활동

식사봉사 및 성금 1000만원 전달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가 지난해 12월 30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하희의 집'(대표자 : 김복순목사)에서 '2015 KLPGA 동계 봉사 활동'을 세번째로 진행했다.

이날 봉사자는 강춘자 수석부회장과 이영귀 부회장, 지유진, 조윤희 이사를 비롯해 고진영(20), 고민정(23), 김민지(20), 김소영(28), 박신영(21), 정희원(24), 황지애(22), 최가람(23), 홍진주(32)가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강춘자 KLPGA 수석부회장은 "KLPGA 선수와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 너무 행복하다.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과 봉사활동을 통해 KLPGA의 따뜻한 마음을 곳곳에 보내주고 싶다"고 전했다.

참가자 고진영프르는 "생각했던 것처럼 무겁지 않고 즐겁게 했던 봉사활동이었고, 특히 아이들이 쉽게 마음을

열어줘서 함께 놀며 좋은 시간을 보냈다. 내년에도 꼭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KLPGA는 E1 채리티 오픈을 통해 조성된 1억 2천만 원 중 6천만 원을 동천의집을 포함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등록된 140여 개 시설에 지원한 바 있다.



더퀸즈컵 바이 코와, KLPGA팀 아쉬운 준우승



KLPGA선수들이 지난해 12월 4일(금)부터 사흘간 일본 아이치현 미요시 컨트리클럽(파72·6500야드)에서 열리는 '더퀸즈 presented by 코와(총상금 1억엔, 이하 더퀸즈)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KLPGA선수단의 캡틴은 이보미가 선발되어 활약했다. 이보미는 JLPGA투어에서 시즌 6승을 거뒀고, 상금왕과 함께 한 시즌 최다 상금액 달성(현재 상금액 약 2억7백만 엔)이라는 기록을 경신했다. 더퀸즈에

서 흥미로운 것은 대전표 추첨 방식이다. 각 투어가 다른 3개 투어의 팀과 한 번씩 대결하고, 남은 한 팀은 추첨을 통해 상대 투어를 결정했다. 남은 한 조의 상대를 정하기 위해 각 4개 투어 사무국에서 조 추첨식에 참가했으며, 알파벳순(ALPG-JLPGA-KLPGA-LET)으로 공을 뽑아 추첨 순서를 정했다. 정해진 추첨 순서대로 진행하여 JLPGA와 ALPGA가, LET와 KLPGA가 1라운드 마지막 두 조를 장식했다.

대회 마지막날, 선수들은 싱글 매치에서 일본을 매섭게 추격했다.

김민선이 일본의 오야마 시호를 3홀 차로 꺾었고 전인지와 김세영은 한 수 위 기량으로 일찌감치 승점 3점씩을 따냈다. 연이은 승전보로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았으나 단 한 번의 패배가 결과를 좌우했다. 조윤지와 맞대결한 일본의 와타나베가 18번 홀에서 긴 버디 퍼트를 넣으면서 JLPGA 팀의 우승을 확정했다. 우리 선수들은 아쉬운 패배에 눈물을 흘렸다. 마지막 날 8승 1패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고도 일본에 승점 3점 뒤져 준우승에 머물러야 했다. 우승은 놓쳤지만 우리 선수들은 싱글 매치플레이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뽐내며 한국 여자골프의 저력을 증명했으며, 유럽팀은 3위 호주팀은 4위를 기록했다.

2016시즌 개막전 현대차 중국여자오픈

장타여왕 박성현, 우승

2016 KLPGA 투어 개막전 '2015 현대차 중국여자오픈(총상금 55만 달러, 우승 상금 11만 달러)'이 지난해 12월 11일(금)부터 사흘간 중국 하이커우에 위치한 미션힐스 골프 클럽 블랙스톤 코스(파 72/6,342야드)에서 열렸다. 2006년 시작돼 올해 10회째를 맞은 이 대회는 한중 골프발전은 물론 양국의 스포츠 교류에도 크게 이바지해왔다. 올해에도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한데 모여 우승컵을 다했다. 이날 박성현이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박성현은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쳤다. 합계 17언더파 199타를 적어낸 박성현은 김효주를 2타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에 두 타 앞서 최종라운드를 시작한 박성현은 전반에는 주춤했으나, 2번홀에서 버디를 잡으며 2위와 3타차를 벌였다. 승부의 분수령인 17번홀에서 김효주의 버디 퍼팅을 버디로 맞받아친 박성현은 18번홀에서도 버디를 낚으며 우승을 확정했다. 세 번째 우승을 노린 김효주는 후반 샷이 흔들리며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러야 했다.

한편, 2015시즌 KLPGA 투어 대상과 상금, 다승왕, 평균 타수 부문 1위를 휩쓴 전인지는 4타를 줄이며 11언더파 205타로, 단독 4위에 이름을 올렸다. KLPGA 드림투어(2부투어) 상금왕 박지연이 합계 8언더파 208타로 안송이, 박결과 함께 공동 5위를 차지했다.



KPGA 총결산 '발렌타인 한국프로골프 대상 시상식 2015' 개최

이태희 대상, 이경훈 상금왕



2015 발렌타인 한국프로골프대상 시상식이 지난해 12월 17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한국프로골프협회와 페르노리카코리아 주최로 열렸다. 행사는 2015 KPGA 코리안투어를 총결산하고 올 한 해 최고의 활약을 선보인 주요 선수들에 대한 시상식으로 대회 스폰서, 골프장, 언론사, 유관단체 등이 대거 참석했다. 발렌타인 대상은 이태희(31.OK저축은행)가 차지했다. 이태희는 "10년 동안 잘 준비한 덕으로 이번 시즌 첫 우승과 함께 대상까지 받은 것 같다. 동계 훈련 기간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내년에도 이 자리에 서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투어 데뷔 10년 만에 '넵스 헤리티지 2015'에서 생애 첫 승을 거둔 이태희는 이수민(22.CJ오쇼핑)보다 5포인트 차로

앞서 주인공이 됐다. 이태희는 이날 마술 공연에도 참여해 관중의 눈길을 끌었다. 이수민은 생애 한 번뿐인 신인상을 받았다. 올 시즌 투어에 데뷔해 군산CC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수민(22.CJ오쇼핑)은 지스윙 신인상인 '명출상'과 한국골프기자단이 선정한 'Best Player Trophy'에 선정되어 2관왕을 차지했다. 이번 시상식에서 이수민은 2부의 시작을 알리는 드라이버 샷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상금왕은 코오롱 제58회 한국오픈 우승자인 이경훈(24.CJ오쇼핑)이 주인공이었다. 김기환(24)은 평균 70.125타를 기록해 최저타수상인 '덕춘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받았다.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상의 주인공이 됐다. 올해 베스트샷은 홍창규(34.휴셈)였다.

'넵스 헤리티지 2015' 최종 라운드에서 보여준 홀인원(7번홀, 파3) 때문이다. 장타상은 시즌 평균 294야드의 드라이버 비거리를 기록한 마르틴 김(27. Martin KIM)이, STAY TRUE 상과 해피투게더 상은 카이도골프 LIS 투어 챔피언십 우승자인 김태훈(31.JDX멀티스포츠)이 받았다. 해외 특별상은 김경태(29.신한금융그룹)에게 돌아갔다. 올해 한해 KPGA를 위해 땀방울을 흘린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공로패는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수상했다. 아시아 최초로 세계 최대 골프 축제인 '2015 프레지던트컵'을 개최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공로 때문이다. 한편 이날 그린카펫 데이트 이벤트를 통해 KPGA 코리안투어 선수들이 골프팬들과 직접 만남을 갖는 순간을 만들어 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발렌타인 2015 한국프로골프대상 시상식 주요 수상자

- 발렌타인 대상 : 이태희
- 발렌타인 상금왕 : 이경훈
- STAY TRUE 상 : 김태훈
- 해외특별상 : 김경태
- 해피투게더상 : 김태훈
- 한국골프기자단 선정 Best Player Trophy : 이수민
- 덕춘상(최저타수상) : 김기환
- 명출상(지스윙 신인상) : 이수민
- 베스트샷 : 홍창규
- 장타상 : 마르틴 김
- 우수선수상
 - KPGA 챔피언스투어 : 신용진(51.히로아키키프)
 - KPGA 챌린지투어 : 조병민(26.선우팜)
 - KPGA 프론티어투어 : 황진명(19)
- 우수지도자상 : 이준석(지산아카데미 원장)
- 스포츠토토 아마추어상
 - 고등부 : 옥태훈(신성고 1년)
 - 중등부 : 노성진(양곡중 2년)
- 2015 KPGA 코리안투어 챔피언스클럽 멤버
 - 허인희, 문경준, 최진호, 이태희, 박재범, 이수민, 장동규, 김대현, 이경훈, 안병훈, 이형준, 김태훈

올 시즌 투어에 데뷔해 군산CC오픈에서 우승한 이수민은 생애 한 번뿐인 신인상을 받았으며 한국골프기자단이 주는 '베스트 플레이어 트로피'까지 받았다.

OKongolf Club Championship

네트워크 온라인게임으로 진행되는 OK온골프 스크린골프대회로써 **각매장, 동호회가 주관하여**,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를 OK온골프 챔피언십이라 칭하며, 각 클럽대회를 통하여 매장, 동호회의 친목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온골프 배일성 이사

차별화된 제품과 전략으로 매니아층 형성해



실제 필드를 구현한 차별화된 전략

“올해로 런칭 10년째를 맞는 오케이온골프를 처음 접하면 다소 어렵다는 얘길 많이 합니다. 스크린골프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는 불평을 뒤로하고 실제 필드를 구현한게 전략입니다. 그게 10년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죠.”

변화에 민감한 IT업계 이기에 초창기 스크린골프의 우위를 점하던 ‘패밀리’, ‘알바트로스’ 라는 브랜드가 사라진 지금,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장인처럼 오케이온골프는 발전을 거듭해 왔다. 현재는 최고의 스크린골프라는 기치에 맞게 변화된 골퍼들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스크린골프를 즐기는 골퍼는 필드 라운딩 전에 스크린을 쳐서 스코어가 잘 나오도록 하는게 모든 골퍼들의 바램인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필드는 변수가 많습니다. 스크린과는 달리 페어웨이가 아닌 경우도 많죠. 오케이온 헤비러프는 탄도 및 백스핀이 줄어서 스코어에 영향을 많이 주는 특징이 있어요. 이같이 변화무쌍하게 골퍼이기에 골프라는 한도에서 게임성을 해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난 10년간의 가장 큰 변화는 볼을 읽는 센서의 변화예요. IR센서, 레이저, 카메라 센서로 변화했죠. 센서가 발전됨에 따라 정확한 볼의 해석이 가능해졌죠. 예전에는 없었던 사이드스핀이나 백스핀을 구현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사이드스핀이 1,000RPM결렸다고 하면 이론적으로 10야드정도 우측으로 가서 떨어져야 정상인데, 그게 회사마다 다릅니다. 백스핀도 측정은 되지만 소프트웨어가 구현을 못해요. 백스핀이

8,000RPM이 걸렸다고 하면 공이 뒤로 와야 하지만 현재 오케이온 밖에는 구현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만의 노하우인데 구현하기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스크린골프의 센서를 구분 해보면 실측과 추론으로 나뉘는데, 알려진바와 같이 오케이온골프의 ‘스핀’센서는 마킹된 볼의 삼각측량을 통한 스핀량을 계산해낸 실제 볼의 궤도를 측량한 것이다. 타 브랜드도 쓰리트랙(3TrakGolf)이라는 미국의 프로그램을 들여와 마킹볼을 쓰는데 마킹이 없는 볼로 쳐도 결과가 나오기에 정확하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실측과 추론의 차이는 탐아마추어나 프로가 아니고서는 구분하기 힘든 것으로 같은 슬라이스라고 해도 많이 휘어질 수 있고 적게 휘어지는 미세한 차이가 나는데 오케이온의 스핀센서가 대중화 되지 못한 이유이다.

스윙폼 분석으로 스코어 줄여

오케이온골프를 플레이 하면 매 스윙마다 자신의 스윙을 볼 수 있다. 필드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듯 자신의 스윙 동작을 분석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고치다 보면 스코어도 줄일 수 있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오케이온 골프를 통해 실력향상을 많이 봤다는 분들을 보면 자부심이 생겨요. 내 스윙을 보는 것 만으로도 뭐가 잘못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자꾸 노력을 하기 때문에 교정이 되는거죠. 스크린골프가 예전보다 더 정확하게 공을 표현해 주기에 골퍼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특화된 시스템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펼친 오케이온골프가 경쟁이 치열한 스크린골프 시장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골



오케이온 헤비러프는 탄도 및 백스핀이 줄어서 스코어에 영향을 많이 주는 특징이 있어요. 필드는 변수가 많거든요.

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골프를 즐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한데 있다.

“일상에서도 트렌드가 항상 변화하듯 스크린골프도 트렌드가 있어요.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 골퍼들의 구미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최근 출시한 ‘맞짱대결’은 1대 1로 대결을 하는거예요. 골프의 특성상 2명이상 팀을 짜서 하기에 혼자서 골프치러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골프가 묘한 매력 있어서 본인은 매일가고 싶지만 팀이 결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지금도 여전히 실내스크린은 웬만해서는 혼자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나홀로 골퍼들을 위해 전세계의 핸디가 비슷한 골퍼들끼리 만나서 골프를 하도록 한 프로그램이예요.”

두 번째로 ‘신스태이블포드’는 점수합산 방식에 차이를 둔건데 스코어가 적게 나

와야 잘치는 일반 게임과는 달리 버디가 -1점이면 신스태이블포드는 2점이고 이 글은 -2점이지만 신스태이블포드는 5점을 주죠. 잘치면 잘칠수록 더 많은 점수를 받게 되는겁니다.“

활발한 연구개발을 통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게임을 개발중인 오케이온골프는 최근 ‘오케이 로보승마’라는스크린 승마도 개발했다. 스크린 승마는 여러업체에서 출시한 바 있지만 정교함과 재미를 더한 오케이온골프만의 차별성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스크린 승마를 결합해 작년에 오픈한 ‘오케이스포츠클럽’은 국내 유일하게 스크린골프와 승마, PT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종합 스포츠센터이다.

대중화된 골프 이후 포스트럭셔리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스크린 승마로 또 다른 질주를 시작하는 오케이온골프의 2016년을 기대해 본다.

어디에 있어도 무엇을 해도 꿈꾸는 듯한 즐거움'

낙원에서의 휴가, PIC 광

PIC에서는 도착하는 날부터 떠나는 날까지 아무것도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휴가를 위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각국의 사람들과 친구처럼 지내면서 푸르게 우거진 열대림, 수정처럼 맑게 빛나는 바다, 눈부신 태양, 붉게 타오르는 석양, 싱그러운 자연과 남태평양의 독특한 향취에 흠뻑 젖을 수 있다.



지갑이 필요없는 여행, 올 인크루시브 리조트

PIC 광은 골드카드 하나로 특급 호텔 숙박과 전 일정 식사 그리고 리조트 내 대형 워터파크에서 70여 가지에 달하는 레저 스포츠 시설의 이용 및 장비대여와 강습까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올 인크루시브 리조트이다. 즉, 여행 내내 필요한 모든 것이 제공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지갑이 필요 없는 여행이 가능하여 환율차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부모가 골드카드를 소지할 경우 만 12세 미만의 자녀는 2명까지 무료로 골드카드를 제공 받기 때문에 추가 비용의 부담이 적어 경제적인 여행이 가능하다.

광 최고의 특급호텔, PIC광 PIC광은 총 객실 수 777개의 명실공히 광 최대의 호텔로 리조트 내 4만 여 평에 달하는 최대 규모의 워터파크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신관 로얄 타워는 전 객실이 바다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 멀리 투몬만과 필리핀해의 멋진 전망을 자랑한다. 또한 리노베이션된 로얄 클럽 룬과 클럽 라운지는 고급스럽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년 내내 다이내믹한 즐거움 PIC광은 마이크로네시아 최대의 풀인 워터파크와 전용 해변, 2,000여 마리의 열대어가 살고 있는 인공 수족관을 비롯 70여 가지의 액티비티 시설을 갖추고 있다. 워터파크 내 수영장에는 90미터 길이의

워터 슬라이드, 수중 징검다리, 액티비티 풀, 랩 풀 등 다양한 시설이 있다. 특히 클럽메이트와 함께 즐기는 수중 배구, 수중 농구 게임은 세계 각국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PIC 광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액티비티는 단연 인공수족관 스노클링과 트램폴린. 실제 바다속 풍경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듯한 인공수족관에는 금방이라도 인어공주가 나올 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키는 대형 조개와 알록달록한 산호초, 각양각색의 열대어가 살고 있다.

또한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트램폴린은 KBS '그 바보'에서 황정민이 신나게 즐기던 바로 그 놀이시설. 높이 뛰어오르는 쾌감과 스릴을 선사한다. 가족 또는 연인과 오붓하고 조용한 시간을 원하는 여행자라면, 인공 호수에서 카약을 타며 PIC 광의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경치를 둘러 보거나 미니 골프 게임, 양궁, 스쿼시 등을 즐길 것을 추천한다. 새로운 레포츠에 도전하고 싶다면 클럽메이트가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스킨 스쿠버 강습과 윈드서핑 강습을 추천한다. 매일 있는 윈드서핑 강습을 하루 1시간씩 듣는다면 어느 덧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자신을 발견할 지도 모른다. 또한 수심 30cm의 '키즈 시해키 스플래시' 풀과 각종 동물 모형이 아이들의 흥미를 끄는 '워터 주'는 어

린 나이의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이 즐기 좋다. 행복한 미각여행 PIC에서는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재미가 있다. PIC 광의 경우 6개의 레스토랑과 바가 있어 전세계 산해진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그 중 최고는 역시 선셋 BBQ. 투몬만 해 너머로 떨어지는 해와 붉게 물든 석양을 바라보며 저녁 식사를 즐길 수 있다. 한국에서는 접하기 힘든 대하와 신선한 해산물을 비롯 갈비, 닭고기, 야채 등을 식성에 따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워터 파크와 투몬만을 한눈에 내려다 보며 로

맨틱한 디너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양식당 '비스트로'를 비롯하여 매일 다른 메뉴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뷔페 레스토랑 '스카이라이트', 낭만적인 해변의 정취를 느끼며 저녁을 즐길 수 있는 '선셋바비큐', 일식당 '하나기',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카페락앤누들' 등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야외 공연장인 원형 극장에서는 매일 저녁 '퍼시픽 환타지 디너쇼'가 제공된다. 6시 30분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저녁 뷔페 식사 후 7시 30분부터 열대 음료를 즐기며 광 원주민 쇼를 볼 수 있다.

PIC 광은 골드카드 하나로 특급 호텔 숙박과 전 일정 식사 그리고 리조트 내 대형 워터파크에서 레저 스포츠 시설의 이용 및 장비대여와 강습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올 인크루시브 리조트이다.





팜 최고의 웰빙 스파, 지바나 (JIIVANA)

리조트 휴가의 최고는 역시 스파. PIC 팜에서는 기존 스파와는 차별화된 웰빙 스파 서비스인 지바나 스파 (Jiivana Spa)를 제공한다. 기존의 전통적 스파 테라피와 함께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요가, 디톡스 프로그램 등의 웰빙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다. 특히 미국 국가 공인 자격증을 갖춘 전문 테라피스트들의 1:1 맞춤 케어가 이루어지고, 천연 재료로 직접 블렌딩한 오일이 사용된다. 이외에도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에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음악과 함께 차 한잔의 여유를 누릴 수 있고 자쿠지, 원적외선 사우나 등의 시설도 갖추어져 있다.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은 '지바나 여행'. 풋 마사지를 시작으로 스트레스와 긴장 완화를 위한 지압, 아로마테라피, 근육이완 마사지와 기 치료가 병행된다. 평소 알레르기나 어지러움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어 캔들링 디톡스 프로그램이 적격. 편두통이 심하다면 부교감 신경 테라피

가 적합하다. 또한 지바나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요가 클래스에 참가하여 다이어트와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는 것도 좋다.

키즈클럽, 아이들 영어와 함께 놀다

PIC 팜은 투숙객 중 만 4세에서 12세 미만 어린이는 누구든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키즈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클럽메이트들이 PIC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알찬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스포츠와 놀이를 즐기는 놀이 학교로 부모는 아이들을 맡긴 후 자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키즈클럽은 매일 다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그리기 공작 등을 배우는 창작 활동 시간, 레고 게임 대회, 실내 게임, 미니 골프 배우기를 비롯 워터파크 내 랩 풀과 아이들을 위한 키즈 스플래시 풀에서 수영과 놀이를 즐기도록 되어 있다. 또한 팀을 나눠 미니 올림픽과 각종 게임을 통해 협동심과 페어 플레이 정

신을 등을 가르쳐 준다. 무엇보다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영어와 친해지는 기회가 된다. CCP 팜 - 할인은 물론 골드카드로 조식과 중식 해결! '태평양 컨트리 클럽 (CCP)'은 팜 남동쪽 해안에 위치한 40여 년 전통의 골프장으로 PIC 투숙객에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무료 셔틀 버스를 운영한다. 특히 PIC 투숙객들은 골드카드로 CCP 조식과 중식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조식은 일본식 정식과 컨티넨탈 스타일 2가지가 있으며 팜 전통 음식인 차모로 음식도 준비되어 있다.

문의 : PHR 코리아 02-739-6162

"태평양 컨트리 클럽(CCP)"은 팜 남동쪽 해안에 위치한 40여 년 전통의 골프장으로 PIC 투숙객에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무료 셔틀 버스를 운영한다.

샤브파티로 연기와 사업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배우 김정현

부천에 위치한 '김정현의 샤브파티'에 가면 배우 김정현을 만날 수 있다. 지난 6개월간 아침드라마에서 열연한 배우 김정현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오픈한지 3년차를 맞은 '김정현의 샤브파티'. 가족단위 모임하기 좋은 명소로 소문난 샤브파티에서 그를 만나보자.

알고보면 따뜻한 감성의 소유자

얼마전 종영한 아침드라마 '어머님은 내 며느리에서' 열연한 배우 김정현. 다작하는 배우가 아니기에 그의 연기를 살펴보면 한결같은 것이 있다. 바로 집념과 의지가 드러나는 강한 캐릭터이다. 전작인 '기황후'에서도 그랬다.

“어찌다 보니 연기경력 20년이 넘었는데, 다양한 역할을 해본 편이에요.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가 보다는 시놉시스나 기획안을 접했을 때 딱 떠오르는게 있는 작품을 선택하는 편이죠. 기본적으로 캐스팅 권한은 작가나 PD에게 있지만 연기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누가 연출이고, 작가인가를 보고 선택하기도 하거든요.”

기황후는 전작인 '대조영' 작가와의 인연으로 출연하게 된 경우죠.”

원래 기황후에서의 역할은 환관이었다. 선배인 이문식씨가 맡은 역할이 너무도 드라마적 그만의 색깔이 묻어나지 않을 것이라 제작진의 판단으로 완전히 다른 역할에 캐스팅 된 것이다. 원래 '당기세'란 인물은 30회 정도에 최후를 맞이하며 끝나지만 인상깊은 그의 역할은 분량을 늘어나게 만들었다. 이쯤되면 모두 궁금해 할만한 그만의 연기 노하우가 궁금하다.

“사극의 경우 각 방송사마다 색깔이 달라요. KBS는 웅장한 뮤지컬 같고, SBS는 퓨전사극이 많고, MBC는 사실적 묘사에 주력하는 편이죠. 사극은 고증된 자료를 탐독하고 자신을 그 인물에 녹여내는게 관건인데, 연기자 본인의 이미지와 느낌을 최대한 살려내는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어떤때는 저만의 느낌이 나

무 강하다고 느낄때가 있는데 그런 저의 캐릭터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있는거니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화 '할리우드 키드의 생애'에서 배우 최민수의 아역으로 이름을 알린 후 그가 가졌던 연기에 대한 신념은 확고하다. 중첩되는 역할을 지양하는 것이다. 배우들의 연기력은 극의 몰입도를 좌우하는 큰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극의 역할로 살아간다. 때문에 좋은 반응을 얻었던 캐릭터가 다른 극에서도 인기를 끌만 하지만 고착화되는 이미지가 싫어 다방면의 연기도전을 한게 그만의 색깔을 갖는 중견 연기자 김정현을 만든 것이다. 방송 여건상 많은 작품에 출연해야 얼굴을 알리고, 소위말하는 스타가 되는데 현실이지만, 다양한 연기경력을 위해서는 이미지 변신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만큼 대중들의 입맛에 맞는 연기 잘하는 좋은 배우의 길이 험난한 것이다.

이러한 험난한 배우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그가 놓지 않았던 또다른 꿈이 바로 외식업이다. 학창시절 그의꿈은 요리사였다. 가족모임이나 제사, 명절때 전, 잡채 같은것들은 그의 전담이다. 향후에 연기를 그만두게 되면 외국에가서 식당을 차릴 계획도 갖고 있다.

“제가 잘하는 것과 제게 맞지 않는것들을 잘 알거든요. 16살부터 연기를 시작했는데, 지금 돌아해보면 연기외에는 할 수 있는게 없기에 외식업에 뛰어들게 된 거죠. 처음부터 순탄하진 않았어요. 스타파티홀은 현재 4개점이 오픈한 상태로 큰 성공은 거두지 못했지만, 오픈한지 3년차가 되어가는 샤브파티홀은 모든지 재밌습니다. 직원들과도 호호히 잘 맞고 분위기도 좋다보니 따로 홍보나 마케팅을 하지 않았음에도 빨리 자리를 잡은편이죠.

샤브파티홀에서 제가 직접 응대도 하기에 고객들이 매장에 있는 저를 신기해 하셨어요. 그렇게 입소문이 나면서 순탄한 길을 걷고 있는거죠. 촬영중엔 힘들지만 '시간 날때마다 열심히 나와야겠다'란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연기와 사업을 하며 그가 깨달은 것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 라는 것이다. 연기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멋진 장면이 나오듯 요리도 각각의 재료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씨너지를 낸다는게 우리삶과 닮아 있다. 일찍이 배우의 길을 걸으며 이같은 깨달음을 가진 그가 자선골프대회에 참가한 것도 이 때문이며, 얼마전 연이 있던 고아원생들을 데려다 샤브파티에서 식사대접을 한 적도 있다.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멋진 장면이 나오듯 요리도 각각의 재료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씨너지를 낸다는게 우리삶과 닮아 있죠.”

골프로 인생을 배우다

배우에게 롤모델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빠지지 않듯 그에게도 닮고 싶은 배우가 있다. 바로 '꽃할배' 박근형이다. 그는 그를 아버지라 부른다.

“선생님과 드라마를 같이 할 때였는데, 저는 한참 볼링을 칠때였죠. 수요볼링이 보고 싶는데, 선생님은 계속 골프채널을 보시더라고요. '정현아 배우는 골프를 쳐야한다. 골프는 금방 되는 운동이 아니거든 배우로서의 인내심과 연기공부에도 도움이 될테니 꼭 해봐라'라고 조언해주셨어요. 좋아하는 선생님이 여러분 계시지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의 말씀이기에 바로 그날 골프샵에가서 골프채를 샀죠. 그리고 무작정 실내연습장에 갔어요. 혼자 독학으로 시작했죠. 인터넷으로 타이거우즈, 닉팔도, 어니엘스 등의 동영상 보면서요. 결론적으로 정말 잘 배웠다고 생각해요. 역시 어르신들 말씀

하시시는것은 잘들어야 한다는게 제 지론입니다.”

그렇게 독학으로 시작한 그의 베스트스코어는 3언더이다. 무엇이든 시작을 하면 끝을 보고 마는 끈기로 몇 년동안은 연습장에서 살다시피 했으며 지금은 따로 연습하지 않아도 중상위권은 되는 실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평생의 본업은 연기라고 생각해요. 사업을 한다고 해서 감율이 바뀐것도 아니고 연기를 열심히 해야 사업도 동반상승할 수 있는 거니까요. 기반이 있어야 선택할 수 있듯이 역력이 있으면 보는 시각도 넓어질 것이고 연기를 평생 하고 싶기 때문이기도 해요. 좋은작품이 있다면 무작정 다하고 싶진 않지만 앞으로는 제가 하고싶은 작품을 하고 싶어요. 연기와 사업 두 마리토끼를 잡는다는게 힘들지만 아직 젊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전할 겁니다.”



MFS골프, 오직 여성만을 위한 여성 전용샤프트

2015년도 한국 골프계는 그야말로 여풍이 거셴다. LPGA에서의 활약도 한국여자골프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여자골프의 인기로 골프를 시작하는 여성들이 급격히 늘어나 여성클럽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에 MFS골프(www.mfsgolf.com)는 편안한 스윙과 비거리에 초점을 둔 여성전용 샤프트 'OZIK Lady'와 'Dress'를 출시하였다. 이번 신제품은 2015년 한 해 동안 골프계를 지배했던 여풍(女風)이 201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여성골퍼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출시되었다.

'OZIK Lady' 샤프트는 MFS골프가 자랑하는 프리미엄 샤프트인 OZIK의 여성용 라인이다. 최근 들어 보다 더 멀리 공을 보내고 싶어하는 여성골퍼들이 늘었다. 여성클럽의 핵심은 탄도상승에 기반한 비거리 향상에 있다. 시중에 나온 여성 전용클럽들은 로프트조정을 통해 스핀량을 조절하여 탄도를 상승시킨다. 하지만 'OZIK Lady' 샤프트는 고탄도중스핀을 구현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여성골퍼들의 비거리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줄 것으로 보인다. '여심을 읽다', '이해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Dress'는 보급형샤프트로 출시되었다. 기존 보급형 맞춤샤프트 브랜드인 KUJOH에서 여성샤프트를 차별화하여 탄성을 한층 높이고, 무게를 낮춰한결 부드러움을 선사하는 Dress가 개발되었다. 따라서 KUJOH 여성용 제품보다 업그레이드된 손맛을 제공할 예정이다. 두 제품 모두 우드샤프트와 아이언샤프트로 출시됐으며, 샤프트 강도(Flex)를 두 단계로 세분화하여 보다 다양한 여성골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전망이다. MFS골프에서 새롭게 출시된 여성전용샤프트는 MFS골프 전국지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캘러웨이골프, APEX 하이브리드 출시

캘러웨이골프(www.callawaygolfkorea.co.kr)가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전 대회 아이언 사용자 1위인 에이펙스(APEX) 아이언의 명성을 잇는 에이펙스 하이브리드를 출시했다.

에이펙스 하이브리드는 페이스 전면부에 인터널 스탠딩 웨이브(Internal Standing Wave) 기술을 적용하고 솔 바닥 부분에 웨이트를 더해 중심을 낮고 깊게 설계했다. 이로 인해 만들어지는 최적의 백스핀이 높은 탄도와 극대화된 비거리를 제공해준다. 가장 큰 특징은 카펜터 455스틸 소재의 '하이퍼 스피드 포지드 컵 페이스(Hyper Speed Forged Cup Face)'가 적용돼 미스샷에도 충분한 볼 스피드를 만들어내어 비거리를 극대화한다. 스윙 시 솔이 쉽게 빠져 나갈 수 있게 해주며 어떠한 라이 컨디션에서도 최상의 구질과 탄도를 제공해준다.

한편, 에이펙스 하이브리드는 지난해 11월 열린 2015 유럽프로골프(EPGA) 투어 플레이오프 3차전BMW 마스터스 대회에서 우승한 팀 캘러웨이 소속 크리스토퍼 브로버그(스웨덴)가 사용한 클럽이다.

캘러웨이골프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한 에이펙스 하이브리드는 캘러웨이골프에서 처음 선보인 에이펙스 라인의 하이브리드 제품"이라며 "비거리, 탄도, 볼 스피드를 모두 겸비한 에이펙스 하이브리드는 우드와 롱 아이언의 최고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히스케이, 'IN-DRIVER' 출시

히스케이의 2016년 신작 '인(IN) 드라이버'는, 광활한 우주를 표현한 블랙색상의 크라운과 금빛 펄을 조합해 우아함을 표현했으며 깔끔한 고전적인 디자인으로 유행을 타지 않는다.

인드라이버는 최대의 비거리와 최소의 미스샷을 목표로 개발된 모델이다. 인드라이버의 헤드는 제작 단계부터 의도적으로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이동시켰다. 무게중심을 헤드의 뒤쪽에 배치함으로써 임팩트 직전 원심력에 의해 헤드의 무게중심과 샤프트의 중심이 일치하게 되는데, 이 때 샤프트가 앞으로 많이 휘어지게 되어 공의 발사각이 커지고 따라서 탄도도 높아진다. 즉, 무게중심을 낮췄고 탄도와 방향성을 강화한 것이다.

헤드바디와 페이스는 내구성이 탁월한 6A-4티타늄을 사용해 경쾌한 타구감과 함께 미스샷 방지는 물론 비거리 증진과 안착률을 높였다. 인드라이버는 샬로우페이스로 설계되었는데, 샬로우페이스는 담페이스에 비해 두께가 상대적으로 얇아 무게중심이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공을 띄우기 쉽고, 좌·우 폭이 넓다 보니 스위트스팟도 넓어져 샷의 일관성을 향상시킨다. 페이스 구조는 센터를 두껍게 하고 그 주변의 두께를 점차 얇게 변화시

인드라이버는 6A-4티타늄을 사용해 경쾌한 타구감과 함께 미스샷 방지는 물론 비거리 증진과 안착률을 높였다.

켜 공이 빗맞았을 때도 거리와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하였으며, 더 나아가 볼의 탄력감과 비거리를 향상시키는데 일조한다. 페이스에 적용된 밀링기술은 불필요한 스핀을 억제해준다.

히스케이골프 관계자는 "어드레스 순간부터 미스샷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스윙에 자신감을 심어주는 인(IN)드라이버로 2016년 필드준비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halolove님의 동영상 레슨

Q. 드라이버 비거리가 고민입니다. 여성골퍼 대부분이 거리 때문에 고민인 걸로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A. 안녕하세요. 배일성 프로입니다.

드라이버 거리때문에 고민이 있으시군요. 사실 거의 모든 골퍼들이 자신의 드라이버 거리가 좀 더 많이 나갔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죠. 프로들과의 샷을 비교해 보아도 비거리가 넘사벽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체적 능력을 감안하여 최상의 거리를 내야 하는게 과제인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걸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골프의 재미가 배가 되는 거죠.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골프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구력이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지만 스윙의 축에 대한 개념을 먼저 습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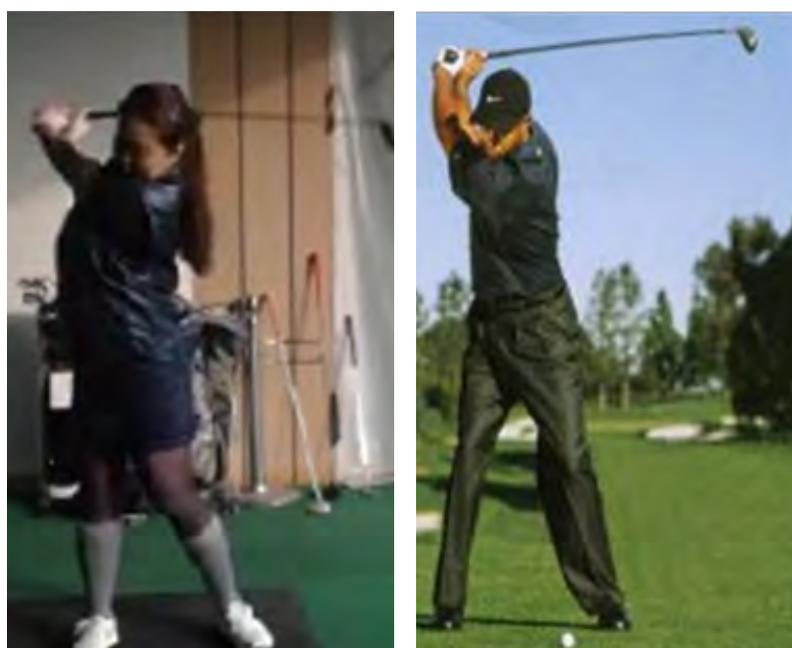
스윙의 축은 머리와 등뼈로 구성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윙동영상을 보면 회원님은 스윙의 축이 머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머리는 좌우로 덜 움직이지만 엉덩이가 좌우로 많이 움직입니다.

위의 사진처럼 머리보다 엉덩이가 더 오른쪽으로 나가게 되면 리버스 피벗이라고 해서 드라이버를 치기에 아주 않좋은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머리와 등뼈가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하고 수평 이동을 해야 임팩트 있는 스윙이 나오지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붉은 화살표가 스윙의 축이라고 생각해보면 머리와 등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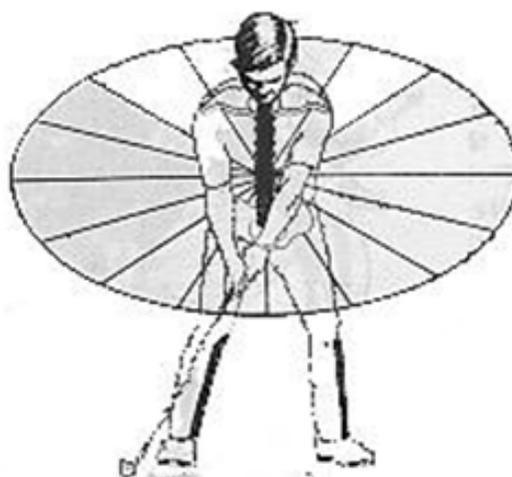
머리보다 엉덩이가 더 오른쪽으로 나가게 되면 리버스 피벗이라고 해서 드라이버를 치기에 아주 않좋은 자세가 됩니다. 머리와 등뼈가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하시고 수평 이동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가 이루는 각이 수평이동 되어서 스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회원님은 처음 셋업시에는 스윙축이 화살표와 일치하는데 백스윙 도중 엉덩이가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스윙축의 각이 바뀌게 됩니다. 탑에서 가장 많이 틀어져있구요, 다운 스윙을 하면서 그것을 바로 잡아 임팩트 순간에는 어느 정도 셋업시와 비슷한 스윙축의 각을 만들고 있는데 릴리즈를 하면서 머리가 앞으로 나가면서 스윙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해서는 스윙의 축의 각도가 변화 없이 수평이동이 되어야 합니다.

많이 어렵죠? 지금 드라이버의 헤드 가장 크에도 불구하고 스위트팻에 볼이 안 맞는 이유가 스윙축이 많이 흔들려서 그런 겁니다. 다른 것보다 먼저 스윙축을 잡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게 가장 먼저 선행 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타이거 우즈와의 스윙비교>



배일성프로
성결대학교 골프 겸임 교수 역임
안양 그린파워 헤드프로 역임
Nicklaus/Flick Golf School 수료
잭니클러스 골프센터 리드 인스트럭터

WEEKLY MISSION

위/클/리 미션이벤트 대회

대회기간 2016년 01월 04일 ~ 2016년 04월 03일

참가비 1,000p

대회 핸디캡 주우승자(+2), 준우승자(+1) (3개월 우승자 핸디캡 초기화)

유의사항

- 게임영상 미존재시 시상 제외
- 2개 계정 이상 계정, 핸디조작시 계정 삭제
- 반드시 핸디캡생성(20게임)된 유저에 한하여 언더/싱글/보기 핸디캡랭킹에 반영됩니다.
- 언더/싱글/보기 수상자(1,2,3등)인 경우 동영상이 오븐 됩니다.
- 플레이어등급은 투어프로로 설정됩니다.

위클리 미션 & 대회 시상

[대회 시상 단위 : 포인트 (P)]

미션구분	1등	2등	3등	7등	내용	동점자 선정
출인원상 (알바트로스)	누적포인트 / N(당첨자)				해당 주 당첨자 없을 경우 이월	-
언더 핸디자 최저타 (-1 이하 핸디캡)	5만 + 네이처 트로피				대회 첫 참가시 핸디캡으로 고정 반드시 핸디캡생성(20게임)된 유저에 한하여 언더/싱글/보기 핸디캡랭킹에 반영됩니다.	1. 참가수 2. 스트로크 최저스코어 3. 백카운트
싱글 핸디자 최저타 (0 ~ +8 핸디캡)	4만 + 네이처 트로피	2만	1만	5천		
보기 핸디자 최저타 (+9 ~ 핸디캡 생성유저)	3만 + 네이처 트로피					
신포리오상	3만	2만	1만	5천	신포리오 방식	
페어웨이 안착률상						1. 참가수 2. 스트로크 최저스코어 3. 게임 선 참여순
그린 적중률상	2만	1만	5천	2천	스코어 카드 각 항목 순	
퍼팅 에버리자상						
최다참가상	1만	5천	3천	2천	최대 참가상 시상	1. 스트로크 최저스코어 2. 게임 선 참여순
파4이글상	1만	5천	3천	1천	이글 성공시 새끼 샷이 장거리 성공순으로 시상	
파5이글상	5천	3천	2천	1천		
OB 위로상					라운딩에서 가장 많이 오비수	
올파상					라운딩에서 올파 성공시	
트리플 버디상	1만	5천	2천	1천	라운딩에서 연속버디 3개 이상시	1. 참가수 2. 게임 선 참여순 3. 백카운트
장타상	골드볼	실버볼	파란볼	빨간볼	칼라볼 아이템(장타, 니어)	
니어핀상						

2 POINT 5만

1 POINT 10만

3 POINT 3만

2016년 01월 04일 ~ 2016년 04월 03일

위클리 신스테이بل포드 챔피언십

핸디캡이 필요없는 점수제 방식의 새로운 대회입니다.
각 스코어에 따른 점수를 획득해서 점수를 많이 획득한 사람이 이기는 경기입니다
대회 기간 중에 참여한 라운딩 스코어들의 총합이 높은 사람이 우승하게 됩니다.

신스테이블포드 룰

Points	Strokes taken in relation to par
+8 points	알바트로스 (-3)
+5 points	이글(-2)
+2 points	버디 (-1)
0 points	파(이븐)
-1 points	보기 (+1)
-3 points	더블보기이상 (+2 혹은 이상)

출인원시 추가 점수 : +5점
18홀 플레이 시 추가점수 : +10 점

※ 월 왕중왕 전 : 매주 우승자 4명중 성적 상위 2명이 맞방대결로 월 왕중왕전 수상

대회 핸디캡 : 주우승자 -20, 준우승자 -10 (*3개월마다 초기화)

참가자격 : OK온골프 준회원 이상 (매장주, 매장관련 종사자 제외)

참가비 : 없음

룰

1. 게임 영상 미존재시 시상 제외
2. 2개 계정 이상 계정 소유시 시상 제외
3. 수상자의 경우 동영상미 오븐 됩니다.
4. 게임 영상에서 세컨샷을 티 위에서 한 영상 존재시 실격처리 됩니다.
5. 동점시 참가횟수, 스트로크 최저타, 백카운트

주수상

1등	2등	3등	7위	통기	니어
10만 포인트	5만 포인트	3만 포인트	3만 포인트 (황운상)	2만 포인트	2만 포인트

12월 왕중왕 월 수상

1위 상품



Faversall
Wellington(웰링턴) INQ028WHBK





상위 1% 골퍼를 위한 싱크로울 99%의 초정밀 시스템!
100% 리얼리티 필드를 구현하는 유일무이한 시스템!

오케이온골프 스피 시스템

카메라센서라고 다 똑같은 센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카메라 센서는 볼의 스핀량을 추정치로 계산해서 사용합니다.
정확한 실측에 의한 스핀량을 측정하고 그 스핀량을 실제 움직임과 똑같이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오케이온골프만의 기술력입니다.



초정밀고속 카메라

- 5대의 카메라가 매진볼의 스핀량을 입체적으로 실측하여 백스핀과 사이드스핀행에 따른 모든 구멍을 표현합니다.
- 페이드, 드로우, 슬라이스, 혹은 물론 피치 런, 런, 러닝으로까지, 코팅 어프로치 등 숨겨진 영역까지 구현합니다.
- 영웅은 보이는 대로 돌리던 필리는 대로 피팅한 스텝을 그대로 재현하여 그린에서 볼을 멈추거나 백스핀을 걸 수 있습니다.
- 자유로운 볼의 위치로 편안한 라운딩을 제공하여 타석에 몰입된 센서가 없어서 볼드에서 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리무타치 감성)
- 커링 현상시 런치앵글, 장항력, 타이드 소리를 분석하여 최적의 커링 스트로크를 완성시켜 드립니다

자연을 담은 "네이처" 프로그램

- 물리학 못본척! 3D공학, 프로그래밍의 전문 자식이 곳곳에 녹아있는 첨단 프로그램
- 지형의 고저, 종적, 비탄의 지형, 물의 지형, 지형의 종횡계수, 지형의 단상계수를 자연의 움직임을 그대로 반영하여 실제 필드에서 플레이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 새로운 MISSS 엔진 적용: 정확한 임팩트의 극적인 슛샷을 그린에서 스코어하세요. 볼의 스핀량에 따라 샷이서 움직입니다.

러블리 캐디와 함께 라운딩 하세요~

- 완벽한 음성지원으로 라운딩의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 상황별로 어떤 것을 골라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 특별한 미니 캐디의 간단한 문호먼트 커스텀으로 골프 심해를 누리세요

GOLF HUMOUR

속담을 골프에 맞게 재해석하여 머리 속에 쑥쑥 들어오게 해 봤습니다.

“프로도 오비 날 때가 있다.”

이것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라는 속담을 골프에 맞게 해석한 것으로 너무 뻔한 실수를 했을 때 이 속담을 기억하면 마인드 컨트롤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미터짜리 짧은 직선 퍼터를 대충 치다가 못 넣었을 때 이 정신적 충격이 다음 홀의 티샷에도 영향을 미쳐 오비를 내고 마는 어이없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나타납니다.

아무리 큰 실수를 했더라도 바로 잊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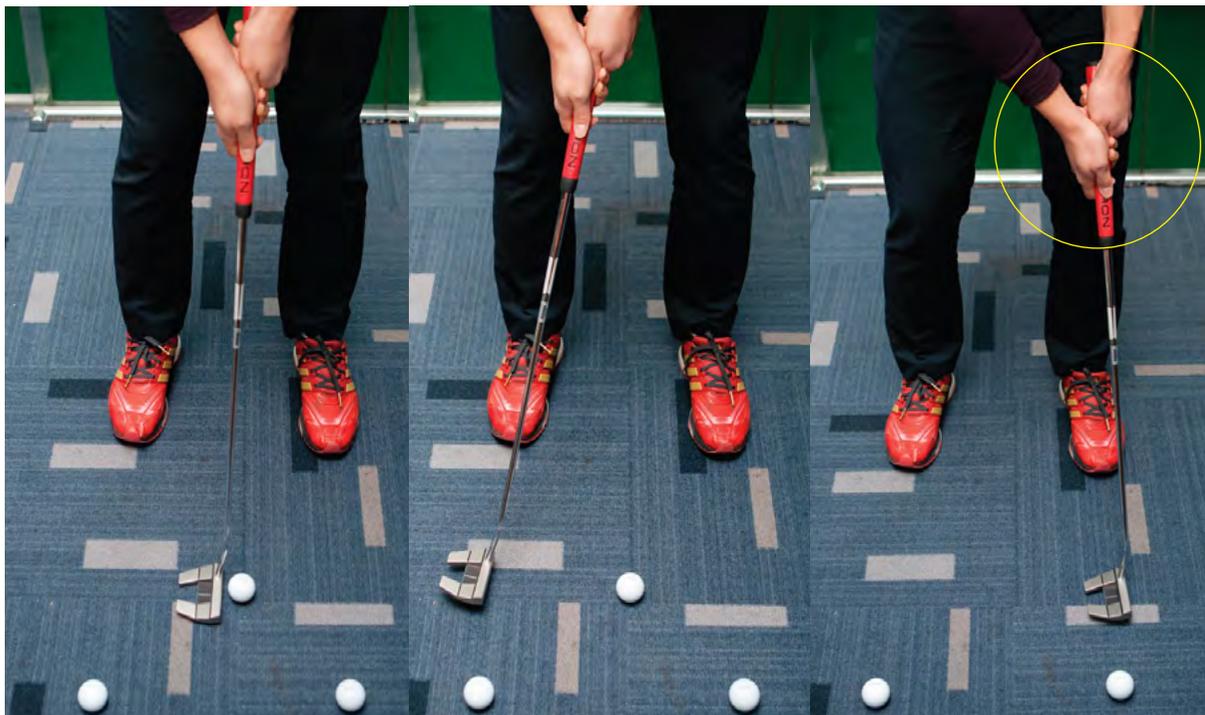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당면했을 때 마음속으로 “프로도 오비 날 때가 있다” 라고 주문을 외면서 마음을 다스리세요.

LPGA 조은애프로의 LESSON DIARY

퍼팅의 거리감 연습

퍼팅에서 거리감은 스트로크의 크기로 만들어 낼 수 있다. 크기로 거리감을 익히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일정한 속도감을 갖는 것이다.

일정한 박자로 속도감을 익힌 후에 크기를 맞춰야 일정한 터치감이 나오기 때문이다. 크기가 달라질 때 마다 속도도 같이 달라진다면 일정한 거리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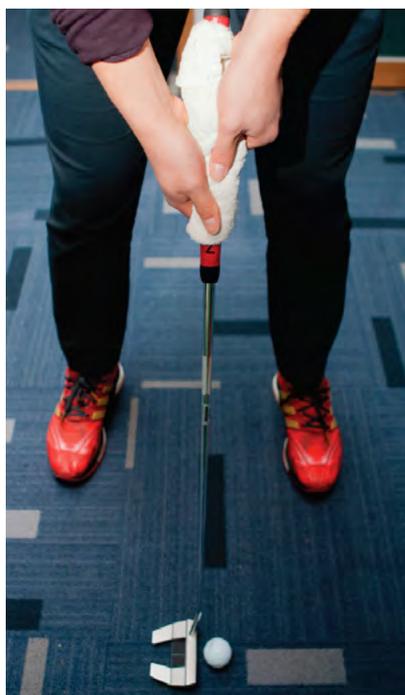


조은애프로

LPGA CLASS-A MEMBER
 KLPGA MEMBER
 타이틀리스트 소속 교습프로
 멤버스 러닝센터 대표
 한국골프대학 비즈니스와 겸임교수
 pga0224@naver.com
 02-571-0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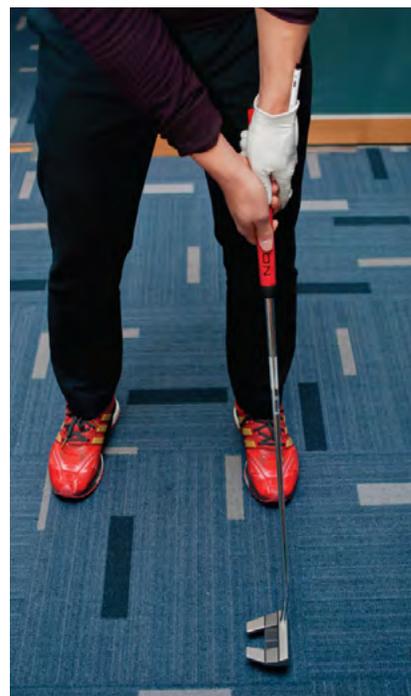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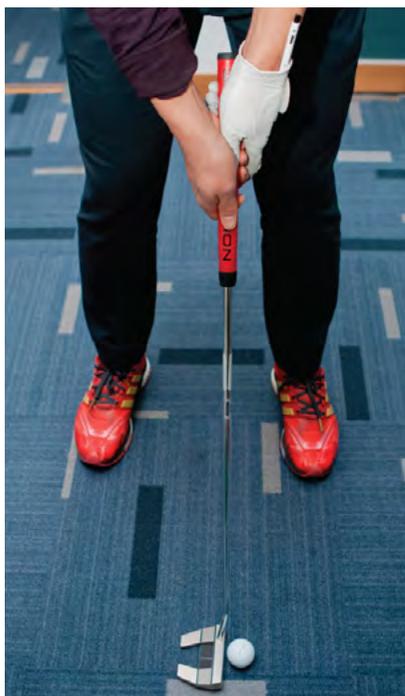
사진에서처럼 공을 기준으로 앞뒤에 같은 간격의 공을 두고 일정한 크기와 속도로 지나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하나-둘과 같이 박자를 세면서 하는 것이 속도감을 맞추는 데에 도움이 되며, 잡고 있는 손의 힘 변화가 없도록 유의하며 연습하도록 한다. 크기와 속도를 같이 맞춰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

퍼팅시 주의할 것은 일정한 박자로 속도감을 익힌 후에 크기를 맞춰야 일정한 터치감이 나오기 때문에 크기가 달라질 때 마다 속도도 같이 달라진다면 일정한 거리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손으로 때리는 감이 많은 경우에는 사진과 같이 그림에 수건을 감싸서 연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손과 손목의 사용이 줄게 되며 자연스럽게 어깨와 손의 일체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한때 최경주프로가 사용해서 인기 있었던 슈퍼스트로크 그림이 이와 같은 원리이다.



손목의 꺾임이 많아 공이 뜨거나 거리감이 없는 경우에는 사진에서 보듯 장갑을 끼고 손목에 볼펜을 끼운 상태로 연습해 보자.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하여 클럽헤드보다 손이 먼저 가는 핸드퍼스트(Hand-First)의 느낌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공이 처음부터 지면에서 잘 구를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 방향성과 거리감 모두에 있어 가장 많은 도움을 준다.

자연이 빚어낸 여덟폭 그림에서 노닐다

단양 8경

단양 8경은 신선이 살 만큼 물 좋고, 산 좋고, 경치 좋은 곳이다. 정도전, 이황, 김홍도 등 명사들도 단양의 경관(도담삼봉, 석문, 사인암, 상선암, 중선암, 하선암, 구담봉, 옥순봉 등 단양 8경)을 극찬하면서 시, 그림 등 많은 역작들을 남겼다.



겨울이 찾아오면 순백의 단양팔경에 는 각기 다른 느낌의 특별한 설레임 이 있다.

단양팔경은 남한강과 그 지류 계곡을 따라 단양을 일원 8~12km 안팎 곳곳에서 하얀 비경의 자태를 뽐내며 살아 숨쉬고 있다.

단양의 옛 지명은 신선이 살기 좋은 고장 이란 뜻의 연단조양(鍊丹調養)에서 유래 됐다. 순백의 단양팔경 추억여행은 여행객 들의 출발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도담삼봉, 석문, 사인암, 하선암, 중선암, 상선암, 구담봉, 옥순봉 순서로 1박 2일 또는 2박 3일 일정으로 돌아보면 비경과 단 양의 천하일미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

우뚝 솟은 삼봉과 석문

단양 8경 구경의 출발점은 제 1경인 도담 삼봉(명승 제44호)이다. 도담리를 끼고 굽이굽이 흐르는 남한강 위에 3개의 기

암이 우뚝 서 있는데 어디선가 떠내려온 듯한 바위봉들이다. 실제로 강원도 정선 군의 삼봉산이 홍수에 떠내려와 지금의 도담삼봉이 되었다고 한다. 3개 중 제일 큰 바위봉은 장군봉(남편봉)이고 양 옆 으로 나 있는 봉은 처와 첩이라고 한다. 이렇듯 처와 첩을 거느린 장군(남편)은 정자(삼도정)까지 갖추고 남한강 위에서 유유자적 풍류를 즐기고 있다.

도담삼봉은 하루에도 몇 번씩 표정을 달 리한다. 이른 아침 남한강에서 피어오른 물안개가 스러지면 옥지 속의 섬인 도담 리의 가을풍경이 도담삼봉의 캔버스를 자처한다. 노를 저어 안개 속을 빠져나오 는 도담리 노인은 퇴계의 시에 나오는 신 선과 같다. 석양에 단풍잎처럼 붉게 물든 도담삼봉이 어둠 속으로 침잠하고 달빛 과 별빛이 남한강 수면에서 금빛으로 너 울지면 도담삼봉은 황홀한 야경으로 거 듭난다.

도담삼봉을 지나 주차장 안쪽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면 음악분수대를 거쳐 석문 으로 가는 오르막 계단길이 나 있다. 길 을 타고 산길에 접어들면 명승 제 45호인 석문에 이른다. 누군가 네모진 문짝만 뜯 어간 듯한, 구름다리 모양의 돌기둥만 남 은 형상이다. 아주 오래 전 석회동굴이 무너진 뒤 동굴 천장만 일부 남아 이런 모양이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석문 자체도 신기하지만 석문을 통해 보는 남 한강과 강 너머 마을의 전경이 또다른 관 램포인트다. 강 너머 마을을 보면 꼭 이 석문은 인간 세상과 천상 세계를 연결하 는 문 같다. 천상 세계는 이 문을 통해 인 간 세상을 내려다보는 듯하다.

사인암, 상·중·하선암 휴양객 가득

선암계곡을 끼고 있어서인지 사인암(명 승 제47호)과 상선암 중선암 하선암은 피서객들로 북적인다. 수많은 사람이 뽀

어내는 소음과 이들이 버린 쓰레기에 한 동안 몸살을 앓겠지만 자연은 이들을 넉넉하게 품는다.

70m가량 높이의 사인암은 가로와 세로 의 불규칙적 절리를 자랑한다. 이곳은 고려 후기 유학자로 고향인 단양에서 벼 슬 사인(舍人)을 지낸 우탁(1263~1342) 을 기리기 위해 사인암으로 명명했다고 한다. 우탁은 ‘한손에 가지 들고 또 한 손에 막대 들고/눅는 길 가시로 막고 오 는 백발 막대로 치렀더니/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는 시 ‘탄로가’로 매우 유명한 인물이다.

월악산국립공원 내 속한 선암계곡의 상 류로부터 중류, 하루까지 10km 구간에는 상선암과 중선암, 하선암이 있다. 널찍하 고 평탄한 바위 위에 자리를 펴고 탁족 하는 관광객들로 가득하다. 저녁 무렵 선암계곡은 바베큐 냄새와 밥 짓는 연기 로 진동했다. 여러 무리의 가족들은 하 루종일 물놀이를 마치고 허기진 배를 맛 있는 고기와 밥으로 채웠다. 선암계곡의 상선암과 중선암, 하선암은 59번 국도를 타고 드라이브 즐기기에 좋다.

‘거북’ 구담봉과 ‘대나무 싹’ 옥순봉

단양 8경 여행의 마지막 코스는 마지막 2경인 구담봉(명승 제46호)과 옥순봉 (명승 제48호). 해발 300m 정도의 바위 봉인 구담봉은 거북을 닮았다고 해서, 옥순봉은 하얀 바위들이 대나무 싹처럼 힘차게 솟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 다. 옥순봉은 그 경관이 뛰어나 작은 금 강이라는 뜻의 ‘소금강’이라고 불린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중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또한, 알콜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CALLAWAY

CELLAR SELECTION



골프의 전설 캘러웨이!

와인의 전설 캘러웨이!

골프의 전설 엘리 캘러웨이씨의 장인정신을 느낄 수 있는 캘리포니아 와인



EASY WINE CO.,LTD T. 02. 308. 2134

